

# 트럼프-시진핑, 14일 베이징서 정상회담·텐탄공원 방문

백악관, 트럼프 2박3일 방중일정 공개...두정상 이틀간 최소 6회 대면

트럼프, 13일 저녁 中 도착...14일 국빈만찬·15일 티타임·업무오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현지시간으로 오는 14일 오전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백악관이 10일(미국시간) 밝혔다.

애나 캐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관련 사전 전화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두 정사는 14-15일 이틀간 최소 6개 행사에서 대면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이하 현지시간) 저녁 베이징에 도착해 이튿날인 14일 환영 행사에 이어 시 주석과의 양자 회담을 한다.

같은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베이징의 명소인 텐탄(天壇) 공원을 둘러본 뒤 국빈 만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15일에는 중국을 떠나기 전 시 주석과 양자 티타임과 업무 오찬을 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은 전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 워싱턴DC로 시

주석과 그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를 초청해 답방 행사를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캐리 부대변인은 전했다.

캐리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중관계는 미국인의 안전·안보·번영을 재건하는 데 초점을 다시 맞추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이번 회담은 현재의 경제 및 안보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며 이러한 목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방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간 해왔던 것처럼 미국의 경제적 독립을 회복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하고 상호주의와 공정함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방문은 엄청난 상징적 의미를 지닐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상징성만을 위해 외국을 방문하지 않는다"며 "미국인은 우리나라를 위한 더 좋은 협정을 성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캐리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회담 의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이틀 앞둔 11일 오전 베이징 주중 미국대사관 인근 한 고급 호텔 앞에 공안 순찰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미중 무역위원회 및 투자위원회 추진과, 항공우주·농업·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간 추가 협정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미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중국의 이란 및 러시아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지원에 대해 시 주석에게 압박을 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대통령은 시 주석과 이란 및 러시아 문제를 여러차례 논의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중국의 이란산 원유 구

매 및 무기 수출 가능성, 대러시아 이중용도 제품 수출 등을 수차례 지적해왔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나는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핵 프로그램 관련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으며,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양국 정상 사이에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미국의 (대만)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 당국자는 반도체 수출통제와 관세 내세운 미국과, 희토류 수출 통제를 앞세운 중국이 지난해 11월 1년간 무역전쟁 휴전을 합의한 것과 관련, "여전히 유효하고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며 "지금 당장 연장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고, 추후에 연장해야 할 수도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잠재적 연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집권 1기 첫째인 2017년 11월 이후 약 8년6개월만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면 회담은 작년 10월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계기에 부산에서 만난 이후 6개월여만이다. /연합뉴스

## 파키스탄서 신생 무장단체 차량폭탄 테러...경찰관 15명 사망

폭발물 실은 차량 초소 돌진 후 총격

아프가니스탄 국경과 가까운 파키스탄 북서부에서 신생 무장단체가 경찰 초소를 겨냥한 폭탄 테러를 저질러 경찰관 15명이 숨졌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AP·AFP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파키스탄 북서부 카이버 파크툽트와주에 있는 반누 외곽 지역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

테러범이 폭발물을 실은 차량을 몰고 경찰 초소로 돌진했고, 이어 무장단체 조직원들이 초소 내부로 침입해 경찰관들에게 총을 쏘았다. 이후 경찰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출동한 보안 기관 요원들을 겨냥한 무장단체의 매복 공격도 이어졌다.

파키스탄 경찰은 여러 차례 폭발과 총격전 끝에 경찰관 15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으며, 검문소뿐만 아니라 인근 주택 여러 채가 파손됐다고 밝혔다.

반누 경찰 대변인인 무하맛 사자드 칸은 "일부 경찰관은 교전 중 사망했고, 다른 경찰관들은 건물에 무너진 뒤 숨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테러 공격으로 파키스탄 당국은 반누의 공공병원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무장단체 조직원 10



10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카이버파크툽트와주(KPK)주 바누의 한 경찰 초소에서 범사가 발생한 차량폭탄 공격 현장을 사람들이 살펴보고 있다. /EPA=연합뉴스

0여명이 이번 공격에 가담했으며, 이들은 소형드론을 사용하고 경찰 무기도 훔쳐 달아났다.

신생 무장단체인 '무자히딘(이슬람 전사) 연합'(IMP)은 언론사에 보낸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극단주의 무장단체 파키스탄탈레

반(TTP)의 3개 분파가 모여 지난해 4월 결성했으며, 파키스탄 당국은 TTP의 위장 조직으로 보고 있다.

파키스탄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아프가니스탄과 가까운 국경 지역에서 무장단체의 공격이 급증했고, 대부분 TTP의 소행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아르헨티나 땅끝마을, 한타바이러스 발원지 의혹 부인

'세상의 끝'이라 불리는 아르헨티나 최남단 땅끝마을 우수아이아가 한타바이러스의 발원지라는 의혹을 부인했다고 10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다.

아르헨티나 티에라델푸에고주 남쪽 끝에 위치한 우수아이아는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유명 관광지로, 이번엔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 'MV 훈디우스'호가 이곳에서 출항했다.

티에라델푸에고주 환경보건국장인 후안 파쿤도 페트리나는 "티에라델푸에고에서는 한타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기록된 적이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다"며 "특히 1996년 국가 감시 시스템이 한타바이러스를 의무 보고 대상 질병으로 지정된 후 티에라델푸에고에서는 단 한건의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BBC에 말했다.

그는 "우리 지역에는 질병을 옮기는 긴꼬리 쥐의 아종이 없고, 습도나 기온 등 기후 조건도 (한타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한) 북부 파타고니아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한타바이러스의 흔적 및 긴꼬리쥐 서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티에라델푸에고에 전문가팀을 파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네타나후 "이란 우라늄 제거할 때까지 전쟁 안 끝나"

미국과 이란이 중전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네타나후 이스라엘 총리가 10일(현지시간) 이란 내 우라늄이 제거되지 않으면 전쟁이 끝날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네타나후 총리는 이날 미 CBS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인 '60분'(60 Minutes)을 통해 방송된 인터뷰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이란 밖으로 가져 나오게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해체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네타나후 총리는 이란의 핵 능력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이란 전쟁에서) 핵 능력을 많이 약화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네타나후 총리는 우라늄과 핵 시설이 여전히 이란에 있는 만큼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 밝혀 이란 내 고농축 우라늄이 제거되지 않으면 전쟁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